

# 與 “공수처장 후보, 내일 결정 못하면 법 개정 돌입”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시간 끌기 좌시 않겠다...이달내 출범”

신동근 최고 “전디는 건 헛치 아냐”...백혜련 “25일 법안소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18일 후보를 압축하고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할 뜻을 내비쳤다. 18일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3차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연전술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마라톤 회의를 거쳤고 자료 검증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유가 있다면 공수처 출범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의지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남기일을 꼭 맞춰야 하는지’ 묻는데, 지금까지 지연전술로 법적 시한을 4개월이나 넘긴 위법 상황에 최소한의 송구함도 갖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수요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시 바란다. 흑사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

인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장시간 회의를 했으나 다만 추천 후보를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가 흑여 야당의 의도적인 지연전술 때문이 아닐까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다.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 “추천위원회는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 압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최종 결론을 도출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순조롭게 처장 추천이 이뤄지는 것은 돌림이에 꽃이 피길 바라는 헛된 소망”이라며 “야당의 방해와 뽀니를 무한정 참고 견디는 것은 헛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한도 없는 포용은 자칫 포기코 오인될 수도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은 원안



민주당 내년 재보선 기획단 회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보궐선거 제1차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왼쪽 두 번째)과 기동민 서울시장위원장(오른쪽, 안규백 조직총괄분과장(오른쪽 두 번째))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어려워질 때 원칙을 잃지 않고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18일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 법

안소위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이달말 개각 예고

3~4개 부처 ... 박능후 복지·이정욱 여가부 장관 교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취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며 “원년 멤버 중 강경화·김현미 장관은 남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새 내각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적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교체 대상에는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해 피로도가 높은 부처 장관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정욱 여가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9월 취임했지만 잦은

말실수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경질성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추미애 장관에 대해 교체 주장도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교체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문 대통령의 재신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 검찰 개혁과 함께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유임 사유로 거론된다.

박영선 장관의 경우 내년 4월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차 개각 때 사퇴할 것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취 문제에 대해 결심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거론된다.

산자부 및 여가부의 교체가 이뤄진다면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총리실과 인사관련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제정권을 가진 정 총리는 지난 주 김의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나 개각 등 부처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민주, 때아닌 이낙연 대표 임기연장론

김태년 “시장 재보선 앞 지도부 안정 필요...내 희망사항 일 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치러내려면 지도부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재보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언급은 개인적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언론 동향 중 하나로 보고됐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천만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유세까지 다 마치고 그만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라며 “당내 이견이 없다 면 고민해볼 만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렇지만 당헌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특히 해당 당헌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선대위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치르는 절충안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재보선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당헌·당규 개정까지 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국민의힘 서울·부산 지지율 박빙

리얼미터 조사 서울 30.1% 동률...부산, 0.8% 차 민주 우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이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떨어

진 27.3%를 나타냈다. 양당의 격차는 5.5%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로 지지도가 같았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6%포인트, 국민의힘은 2.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30.1%, 국민의힘 29.3%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 지시에 대해 민주당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도 반대하는 등 진영 내 갈등 양상이 벌어진 것도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열린민주당은 7.5%, 국민의당은 7.2%, 정의당은 5.7%,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 1.1%의 지지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4.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1.0%,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떨어진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